



建設工事의 質的向上과 監理方向

Advancing on Quality & Regarding to Supervision
in Construction works

- 건설문화의 창조는 의식과 제도 개선에서 -

李 鶴 榮*

Lee, Hak Young

1. 周邊의 敎訓들

허드슨강을 사이에두고 뉴욕의 맨해튼 북부와 뉴저지주까지를 잇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조지 워싱턴 大橋이다. 1931년에 준공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65년째, 그 많은 차량과 러시아워에 몸살을 앓고 있으면서도, 미국 시민들은 필자의 안전성과 耐久性 질문에, 왜 이 교량이 崩壞 될수 있으며, 안전에 문제가 있을수 있겠는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시공한 이 건조물에 대하여 붕괴 된다는 말이나 불안전 이란 그들의 머리속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전문가들에 대한 信賴가 얼마나 깊은 가를 반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매일 보고 다니는 교량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또한 지난 88년 완공된 일본의 세토대교는 혼슈(本州)의 오카야마(岡山)현과 시코쿠(四國)의 가가와(香川)현을 잇는 연장 9.4km의 교량이지만 무려 9년 6개월간 공기를 갖고 공사를 마무리 했으니, 그네들이 얼마나 施工管理가 철저 하였으면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었을까 하고 반문 해보고 싶다.

우리는 최근 불명예스럽게 당하고 있는 토목이나 건축 구조물들의 붕괴나 참사로 인하여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건설 불신을 놓고 볼때 한번쯤 짚고 넘어 가야할 事案인 것 같다.

물론 외국의 선진국들도 불명예스러운 건설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지난 전철로 인하여 반복되는 誤謬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후의 개선도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주변에 있는 문화 선진국들은 선조로부터 물려 받은 훌륭한 문화 유산으로 후세의 사람들이 역사의 긍지를 갖고 문화민족으로 대접 받으며 살아가는 이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고대 노예(奴隸)문화인 애급의 피라밋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을 제외 하고도, 최근 이름 있는 건조물들이 우리에게 던져 주는 敎訓은 크다.

중세의 고딕 건축물들과, 審美眼과 스케일 미를 자랑하는 에펠탑이나 미국의 동부에 있는 자유 여신상,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인도에 있는 룡상의 노트르담 교회 등 20세기에 들어와서도 후세에 남을 많은 작품들이 있는 곳에 憧憬과 讚辭를 아끼지 않고 관람객들이 몰려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무엇이 建設文化 創造에 걸림돌 들인가

금세기에 정보통신과 컴퓨터는 인간활동에 있어서 종래의 모든 관념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혁명을 가져 왔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 建築施工技術士, 極東建設(株) ENG사업부 常務.

또 사상 경쟁에서 동서의 냉전은 서서히 막을 내렸고, 국경없는 경제 전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이즈음 건설분야는 무역, 전자, 정보 통신과 같이 단순 업종이 아닌 응용과학 분야로써 운신의 폭이 나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소프트 領域에서 하드 웨어로 이전되어 가는 산업구조가 다양하게 포용된 분야이므로 모든 관행과 제도, 인간의 의식 전환이 급변하는 여건에서 쉽게 변신 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부실공사가 첨단 산업사회에서 불때는 오히려 落後된 분야로 인식되고 있는것이 오늘의 건설환경이다. 이러한 낙후된 인식을 갖게하는 저변에는 견해에 따라 관점은 다르겠지만 많은 요인들이 산재하여 있다.

우선 列擧하여 보면 일제치하에 쓰던 현장 용어들과 관행들, 불합리한 입찰이나 덤핑수주, 불법 하도급거래, 질적으로 저하된 설계나 용역들, 전문 건설업체의 脆弱性, 기능공들의 자질과 책임의식 缺如, 무리한 공기의 책정, 시공회사의 책임의식과 경영자의 부실관행, 행정의 비전문성, 감리 및 감독자의 使命感 부족, 사후관리의 불철저, 참여하는 공인들의 짜 맞추기식의 행정에서 부터 명예와 참여의 矜持 보다는 현실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득머섯 처럼 도사리고 있는 한 건설문화는 꽃을 피울 수 없고 後世에 못난 조상들로만 記憶 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公과 私가 분명한 사회이고 모든 의사결정은 專門家에게 달려 있고 명예는 마땅히 돌아갈 사람에게 돌아간다.

이제 국제 사회의 位相과 국민의 소득수준, 문화생활을 熱望하는 慾求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들이 先頭에 서서 건설문화 창조에 앞장을 서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3. 建設文化的 質的向上을 위한 所見

1) 入札制度和 發注慣行

건설업을 辭典에서는 “토목 건축에 관한 공사를 도급 받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영업 과정 중에는 건설경영 전반의 활동이 수반될 것인데 모든 再生産 과정의 특성상 위험의 부담, 인력, 장비, 기술의 보완, 규모에 따라서 하도급이 不可避하며 현장시공을 직접 담당하는 하도급 업체의 능력 및 기술이 시공의 최종적인 질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 부문의 거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공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합리적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 적절한 契約이 우선 과제이다.

적정한 계약을 유도하고 덤핑 입찰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95년 7월부터 부대입찰제도를 채택하여 公共 발주의 입찰에 적용하고 있다.

附帶 入札制란 건설업체가 원도급 입찰전에 미리 하도급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견적을 받아 공사종류별 하도급별 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인데 원도급자의 견적시에 견적의 참여와 事前에 가격의 調律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입찰시에는 하도급 계획서가 첨부된 입찰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와 원도급자간에 맺어지는 도급계약 체결시에 도급계약서상 하수급자와 하도급 금액 변경을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도급 계획서와 달리 계약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하여 둘 것은 공공 발주 공사에 局限된 운영이며, 백억원 이상의 제한된 공종이므로 민간공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제도 운영 과정에는 어떠한 부정이나 관행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건설공사의 質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設計의 質的인 問題

공공 工事의 감사 실적 자료('86.1.1~'93.6.30)의 分析에 의하면 공사현장에서 유형별 부실요인이

- 설계의 不適正이 40.9%
- 不當시공이 25.8%
- 설계변경등 施工管理의 부적정이 7.7%
- 부당한 계약이 7.8%로 紙上에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대한 건축학회의 “구조 안전진단 건물의 보강과 건물기능에 관한 분석연구”(92년 7월)의 자료에 의하면 건축물 구조체의 瑕疵 원인별 분석에서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이 57.4% 차지하는 바 내용인즉 지반조사의 미비로 인한 구조 해석의 誤謬나 하중적용의 不合理를 지적하고 있으며, 설계에 관한 사항으로는 23%를 차지하고 있는 바 시공에 필요한 도면과 시방서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시공에 관한 사항으로 재료의 強度가 부족한 것이 1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인식을 바꾸어 놓아야 할 것은 설계라고 하는 서비스 영역의 이 업무는 대체적으로 결합이 없는 “디자인”분야로 인식되고 있지만 부실이나 하자라고 하는 건설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계라고 하는 용역업무는 광범위한 應用科學을 바탕으로 하는 技術工學 분야와 創作 藝術의 영역이 결합된 하나의 저작 행위인 바 발주자나 사용자 모두가 문화 창조의 기대감 때문에 그만큼 책임과 名譽도 따르는 분야이다.

필자가 언급하고 있는 좋은 작품은 품질 높은 설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서 그나마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진 일부의 건물들은 외주의 설계나 기술로 지어졌거나 또는 핵심 기술이나 소프트한 부분이 외국의 용역에 의존한 사실을 일부 관심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63빌딩, 여의도 럭키 트윈타워, 무역센터, 국제빌딩, 롯데 월드, 교보빌딩을 위시하여 대전 엑스포의 일부 전시관, 최근 준공한 포철의 서울 사옥등이 해외 용역에 의존하였는 바 국내의 건축사나 엔지니어링 측에서는 실시설계 업무에 종사

하거나 認許可 업무에 참여한 경우가 많이 있었고, 건축물의 전체적 構造, 意匠 등을 설계하는 아이디어는 해외용역에 의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국내의 용역업소의 능력은 부재인가.

필자의 所見으로 대답하면 능력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다고 답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국내에서 법으로 보장 받는 認許可나 戶口之策의 일환으로 적당히 납품도면의 요식만 갖추면 된다는 관행적 용역이 아니라 프로정신을 갖는 직업 의식과 오직 명예를 위하고 작품을 위하는 정신으로 설계하고 감리 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의 많은 事例들을 체험하여 경륜과 노하우를 축적해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노력이 비교적 적었던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설계용역은 문화창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길잡이 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룹들이 건설문화 창조에 善導的 역할을 하고 나설때 건설문화의 질적향상을 기할 수 있다고 본다.

3) 施工會社の 責任意識

사회 心理學者들에 의하면 국민들의 소득이 6천 불을 넘으면 모든 삶의 욕구가 量보다 質을 추구한다고 한다. 96년 잠정 통계에 의하면 개인 소득 만불 시대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와서 우리국민들은 그 어려운 貧困을 물리치면서 오늘의 성장과 발전을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오늘이 있기 까지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없지 않았고 특히 우리는 三不, 즉 많은 不正들과 서로의 不信들과 많은 不實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다.

그러한 逆境과 오늘의 榮光이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듯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식을 把握한 정부도 이제는 양적 成長보다는 질적 성장에 눈을 돌리고 서비스나 복지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성장

발전에서 오는 당연한 논리인 것이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痼疾의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건설 환경개선 및 품질혁신을 위하여 모든 제도나 慣行의 개선과 철저한 중앙 감사등으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으나 구시대의 관행과 累積되어온 부실의 흔적들은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범 사회적인 부실 척결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건설의 추락된 명예는 다시 찾아야 할 것이다.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은 직접적으로는 공사 관련자들에게 있으며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것도 역시 관련자들이다.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들 중에는 최고 경영층의 의지의 부족(Lack of top management commitment)에서 부터 시작하여 조직의 미흡, 교육의 부족, 규정의 미준수, 자원의 부족, 시간의 부족, 전문성의 缺知 등이 품질 저해의 원인이 되어 하자 내지 총체적 부실이란 汚名이 붙게 된다.

그러나 代案은 별다른 왕도가 없으며 꾸준한 품질관리와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길만이 건설미래를 保障할 뿐이다.

그 다음으로는 하도급 경영자의 책임의식과 직접 공중에 투입되는 기능공의 문제인데 시공회사가 살아남기 위하여 하도급회사는 당연히 共存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소 하도급 업체를 성장 발전시키는 것은 시공회사의 의지이며 동시에 책임 져야 할 부분이다.

전쟁터에서 소대장이 戰死하면 소대원의 사기는 어떻게 될 것이며 소대원에게 補給이 차단되거나 사기가 떨어지면 승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현장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하도급자가 사기를 잃던가 출혈중인데 기능공들이 무엇을 믿고 그네들을 따르고 양질의 공사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시공회사는 등록된 하도급자를 從屬의 관계가 아닌 공존의 관계로 하도급자의 성장이 곧 자기의 성장으로 인식하고 경영자들이 부실 척결의 의

지를 갖고 양질의 資材, 적절한 裝備, 적절한 工期, 합당한 價格이 제공되고 모든 공정에 관련자들이 使命感을 갖고 정성을 쏟을때 우리의 건설 불신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4) 關聯者의 責任意識

우리의 의식속에는 潛在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의식과 후천적 환경에 따른 의식이 종합된 어떤 習慣에 젖어 있다. 건설 현장에서 自意든 他意든 나타나고 있는 한국인의 否定的 사고 방식을 필자가 분석한바, 이러한 의식들은 발전의 阻害 요인이며 하루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할 課題이다.

● 適當主義

適當이란 어느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비교적 알맞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세의 일제 36년간 피 지배 민족으로 통제받을 때는 적당히 때워야 하고, “처삼촌 벌초하듯”대략 건성으로 해치우는 정신자세가 오늘에까지 묻어 내려와 每事에 건성으로 해치우는 버릇이 현장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지않나 考慮되는 바 일본의 정신적 문화적 피해가 이렇게 큰 것을 깊이 알고 하루 빨리 原則을 준수하는 의식으로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 排他性

이조의 사색당파에서 시작하여 일제치하, 남북분단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의식으로 看做되는 바 이 배타성의 논리는 당파 싸움에서 보듯이 南人이 하는 일이면 무조건 北人이 異意를 제기하고, 제사상의 脯(膾)가 왼쪽이니 果(果)가 오른쪽이니 하고 서로 우겨대며 제삿꾼들은 모이면 싸움이다. 또한 일제 억압에서 일본것은 무조건 싫으니 排他的 의식이 몸에 밸수 밖에 없고 남북분단에서 사상적 대결과 동족 전쟁등이 배타성을 우리의 의식에 잠재해 놓았다고 본다.

이러한 의식이 팽배해 있어 긍정적 사고방식이 주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배타적이고 부정적 논리가 계속 현장에 깔려 있는 한 건설발전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 躁急性

氣候的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일제하 피압박 민족으로 쫓겨 다니며, 살아 남기위한 피신 행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 놓았으며, 해방을 맞으면서 민족의 이동이 조급한 마음을 더욱 가속 시켰고 6.25 동란때 生死를 가름하는 동족 전쟁과 피난살이가 우리의 마음을 급하게 만들어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안전관리 측면에서 불안정한 행동의 대부분이 조급한 행동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서두름병이 있는 한 날림 공사는 계속 될 것이다. 시공회사나 종사자 모두는 이 서두름 병에서 헤쳐 나와야 선진건설과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 個人主義

보는 관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방이후 치열한 入試경쟁으로 우선 경쟁자를 물리쳐야 입시의 관문을 뚫을 수 있고 상대를 따돌려야 입사할 수 있는 풍토와 5.16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만이 살아야 되겠다는 이기심이 우리 몸속에 배어 있는 것 같다. 개인주의가 성장하면 고도의 집단 利己主義로 발전할 수 있는데 오늘의 한국 사회가 바로 이러한 의식들로 팽배하여 긍정적 이기보다는 부정적 요소로 변져가고 있는 것이 여러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규태 선생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란 저서에서 “한국인은 자신의 능력을 집단의 능력으로 투사하고 절충시킬 줄 모르며 자신의 이해나 의사를 집단의 理解나 意思를 위해 희생시킬 줄 모른다”고 지적한바 있다.

건설문화의 창조는 개인의 이익이나 집단의 이기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먼 안목과 洞察力을 갖고 각자의 업무에 集團을 위하여 희생 할 때만 가능하고, 이러한 공동의식과 사명감이 시공자나 관련자 모두 깊이 인식하고 실천 할때만 가능 하다고 믿는다.

• 遵法정신의 缺如

법을 잘 지키면 못살고 脫稅하고 法網을 잘 피하면 잘 산다는 의식이 어느 사이 우리 주변에서 상식화 되어가고 있는 듯 싶다. 이러한 의식도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우리 국민들은 抵抗하고 離脫하고 脫法하는 것이 反日 愛國하는 정신으로 심어졌으니 소위 식민지 根性이 아직 잔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그 배경은 역시 일본식민지 통치에서 찾을 수 있고, 해방 이후 이나라 일부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는데 率先 垂範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를 자행 하였으니 국민들의 눈에는 정치 불신이 싹트고 遵法정신은 약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우리 한국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障礙要因이 되며 우리 건설현장에서 지키려는 의지보다는 설계나 지방서의 규정을 피해 보려는 속셈이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의식이 계속 도사리고 있는 한 양질의 공사를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설현장에 긍정적인 徵兆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 3D의 忌避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문화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현상은 당연 할 것이다. 그러나 양적 성장은 3D를 묵묵히 견디고 일한 종사자들이 없었으면 불가능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기피하는 현상은 80년대 후반부터 소득수준이 향상 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으나 좀더 거슬러 올라가면 先祖들의 선비사상이나 士農工商의 계급적 선비의식이 잠재한 결과로 보여지며, 기술 선진국들은 화이트 칼라 보다 블루 칼라가 待接받는 사회이고 그러한 기술과 기능 優位의 사회에서 건설 부실의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는 드문 것 같다.

기능공들의 땀흘린 대가에 대하여 반드시 補償이 돌아가는 강구책을 마련하여 그네들이 건설문화

발전에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정책적 配慮와 복지 문제가 하루 빨리 선결 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된다.

5) 專門 建設業體의 問題點

다수의 전문 건설업체들은 동종업체간에 많은 競爭과 향후의 거래선 확보 측면에서 出血 견적이 시작되고 기술적 전문성 보다는 노무 하청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低價 하도급의 원인은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은 주로 원도급자의 덤핑落札, 원도급자 끼리의 과다 경쟁이 하도급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격문제는 결국 품질 저하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며 하도급의 불공정이 없어야 원청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역설적인 방법으로 풀어 나가지 않으면 건설의 信賴는 찾기 어려울 것이다.

작은 바늘 구멍 하나가 독을 무너 뜨린다면 구멍을 만든 원인을 제공한 원청자가 그 災難을 막을 각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건설 정책 연구원에서 개최한 입찰제도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의 이재우 박사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밝힌 1년간에 적발된 460건의 불공정 거래중 제조부문이 188건, 건설부문이 272건으로 총 제조부문 물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건설업의 규모로 볼때 건설분야의 불공정은 더욱 頻頻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是正 되어야 할 類型들은 대금미지급, 대금 지연지급, 어음 할인을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감액, 선급금 미지급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으로 하도급업체가 안고있는 技能工 문제인데, 가장 밑바닥에서 품질을 좌우 할 수 있는 마지막 堡壘가 기능공이다. 이 기능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설품질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네들이 전문 기능공으로써 自矜心을 갖고 일을 할때만이 이 분야가 발전할 수 있다.

년간 기능공 취업인구 중에서 약 40%가 農繁期

에는 농사를 짓고 農閑期에는 주변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에서 무슨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대 할 수 있겠는가.

정부와 건설업계는 기능공 문제를 건설정책 차원에서 전문 직업인으로 교육하고, 건설의 한 가족으로 육성하고, 기능 경력의 관리, 보험 문제, 우수 기능인에 대한 처우 등을 검토하고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4. 監理方向과 公人意識

우리나라의 감리제도는 '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된 이래 본격적으로 90년 1월부터 시공감리가 시행되다가 '94년 1월부터 전면 책임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96년 1월 현재 266개의 감리전문회사가 등록되어 종합감리가 60개, 토목감리가 50개 업소, 건축감리가 156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감리가 주재하는 현장은 대부분 일반감리 현장임에도 책임 감리를 맡은 현장 인양 언론이나 관련 공무원들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운용 되거나 실무에 적용되고 있음을 볼 때 過度期的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책임감리 적용은 공공 공사에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토목, 건축공사 이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평방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나 기타 공사로서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적용을 받으며 발주기관의 공사감독을 代行하는 감리를 말한다.

민간공사는 일반 감리로 통칭하며 연면적 5천 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현장에 상주냐 비상주냐로 구분하여 건축법 및 건축사법을 적용받는 감리가 있고, 20세대 이상인 공동 주택의 경우 3백세대 미만은 건축사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감리와 3백세대 이상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감리가 있다.

이러한 細分된 감리 운영의 문제점은 시행 과정에서 보완하여 나가겠지만 법의 오류나 언론의 잘

못된 보도로 감리원의 부담감 내지 책임의식 때문에 감리원의 士氣가 저하되어 감리를 忌避하는 현상까지 빚어져 부족한 감리원의 확보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느 사회이든 權限이 주어지면 책임도 따르는 법이지만 감리역시 최종권한이 공사의 재시공이나 공사의 중지 명령권이 附與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벌칙은 종전에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의 개정으로 최고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벌칙이 2배 이상 강화 되었다.

현재 사회적 여건이 건설불신이 팽배 해 있는 가운데 명예가 회복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信賴나 名譽가 회복되면 감리원의 권한은 더욱 확대 되어야 하고 모든 책임은 사안에 따라 나누어 가져야 한다. 그것은 감리원이 부실공사의 최대 보루는 아니기 때문이며 감리가 정착되고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리원도 스스로 자기의 자질을 檢證하여 지식, 경험, 통솔력을 길러 건설문화 창조에 선봉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矜持와 公人意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최종으로 감리는 명예와 權威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프로 페셔널 정신을 발휘 할 수 있는 자 만 이 이 隊列에 합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建設文化의 結實

不實이란 낱말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였다고 한

다면, 그 열매를 맺지못한 원인이 종사한 인부에게만 책임이 있겠는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좋은 토양이 있어야 할 것이고, 박토이면 거름을 주고, 가물면 물을 주고, 김을 매는 등, 총체적 관리와 정성을 들여야 할 것이다. 좋은 結實을 맺기 위하여 그런 노력이 필요할 진데, 공사라고 하는 매카니즘은 人的, 物的, 時間的 관리나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堅實하지 못하여 부실한 공사가 되었다면 농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다. 이것은 삶을 위한 用器를 만드는 일, 즉 사람이 거처하는 空間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사의 충실한 열매 즉 양질의 공사가 되기 위하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문화 창조에 걸림돌이 되는것 들은 과감히 개선 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되면 남의 탓 보다는 자기 선상에서 해결하고 책임질 覺悟를 해야 하며 윗사람들 일수록 자기 省察의 기회가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 옆에 있는 기능공들을 어떻게 하면 사기를 振作 시키고, 긍지를 갖고 각자의 기능을 최대한 發揮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며, 萎縮되어 가는 전문 건설업체 즉 하도급자를 育成 시켜야 국제 경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의 課業이며 世界化를 위하여 살아 나갈 길이다.